



지난 12일 장성군 남면 인근 야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바이벌 동호회 '블리츠'회원들. 각종 개인 화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복장에 따라 '사막 위장복' 팀과 녹색, 갈색 혼합의 '우드랜드' 팀, 이라크 용병(PMC·Private Military Contractor) 팀으로 나눠 실전같은 '전쟁놀이'를 즐겼다.

# 죽느냐, 사느냐... 서바이벌에 빠지다



## 광주 서바이벌 동호회 '블리츠'

지난 12일 오전 11시 장성군 남면 인근 야산. '사막 위장복', 카키색·일록무늬 전투복을 입고 숨 죽인 채 포복을 하던 '군인들'이 작전 명령에 따라 적이 접거한 언덕 위 향해 뛰어올랐다.

'두두두두...', '다다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지름 6mm짜리 BB탄(플라스틱 탄)이 튀어나왔다. 후방 나무 밑, 풀 속에 엎드려 총을 겨누고 있던 엄호조, 저격수의 총구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사", "전사". 여기저기서 전사자가 속출했다. 두 손을 들고 숲에서 걸어 나오는 군인들의 얼굴은 땀으로 뒤덮였다.

실전같은 전쟁놀이의 1차전이 끝났다. 한 차례 총소리가 멎은 대신 '군인'들의 고향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2회 게임을 위한 전략과 작전 지시도 이어졌다. 동호회 김한태(39·유진방재(주) 부장) 팀장은 "한 번 모일 때면 5~6회 게임을 뛰는데, 그때마다 전술이 매번 바뀐다"고 말했다. 동호회원간 '담배갑 넘어뜨리기' 권총

사격 대결도 쉬는 틈을 타 치러졌다.

이날 게임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서바이벌' 게임(Survival Game) 동호회 '블리츠'팀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에 따라 '사막 위장복'팀과 녹색과 용병(PMC·Private Military Contractor)복장 팀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게임 경기 방식은 상대 팀을 모두 전사시키는 전멸전, 고지를 빼앗거나 지키면 승리하는 고지점령전, 상대 팀 진지의 깃발을 탈취하는 깃발탈취전 등 다양하다.

어떤 방식이든 블리츠 동호회가 가장 중

달에 두 차례 이 곳 야산 등을 찾아 자연속을 뛰어 다니면서 게임을 즐긴다.

김 팀장의 경우 지난 2000년 처음 서바이벌의 재미를 느껴서 M4R.I.S, M4시스템 등 소총과 글록17(Glock 17), 콜트1911 권총 등의 장비 구입에 애정을 쏟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 팀장은 "총을 조준, 사격해 상대를 전사시키는 기분도 짜릿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이라며 "산을 뛰어다니다 보면 운동량도 적지 않다"고 게임 매력을 소개했다.

## 두두두... 다다다... BB탄 빗발에 "전사" "전사"

## 100여 회원 한달 두차례 야산 뛰어다니며 총격전

## '협동의 재미' 스트레스 날리고 운동·다이어트 도움

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미'와 '안전'이다. 즐기려고 왔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다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다. 김 팀장 등이 게임 전 고글·장갑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5m이내 근접사격 금지 등의 규칙을 세워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바이벌 게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이 즐기다 일반인들 참여가 늘면서 규격화된 모의전투 게임으로, 90년대 초 한국에 상륙한 뒤 급속도로 퍼졌고 광주지역에서만 십여 개의 동호회와 수백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블리츠"는 지난 2006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http://cafe.daum.net/Blitz2006)에 카페를 개설하고 활동중인 회원수 138명인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들은 한

같은 동호회원인 이정민(26)씨도 3년 전부터 서바이벌에 푹 빠진 마니아다. 특히 이씨는 장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이날도 조준경을 갖춘 아크틱 워퍼(L96A1) 저격용 소총과 MP7, MP5 등 기관단총, 권총 2개에 탄창, 연막탄, 수류탄 등을 포함해 족히 20kg은 넘어 보이는 군장을 하고 산속을 뛰어다녔다. 그는 "군대 제대 후 취미 생활로 시작했는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군대 시절과 또 다르다"면서 "한 번 해보면 서바이벌의 재미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 남짓된 '신참'동호회원인 한지수(29)씨는 여성들의 참여를 권했다. 한씨는 "여자친구가 한번 따라왔다가 체험 해본 뒤 재미있어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서 "운동량도 많아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서바이벌 장비 기호에 맞게 준비

## 소총 중고품 20만~30만원선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군장은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총·군복·고글·장갑 등은 게임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들로, 소총은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20~30만원 이상은 든다.

예전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다. 고글과 장갑·군복은 개인 기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무전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대부분의 서바이벌 마니아들은 장비에 갖는 관심이 각별하다.

기본 모델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곁을 수 없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분야에 취미를 붙이면서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는 일이 많다. 소총 3~4개는 기본이고 권총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10개 이상씩 소유하는 사람도 있다. 기본만 갖춘 소총이라도 중국산을 비롯, 일본제와 국내 생산 소총의 가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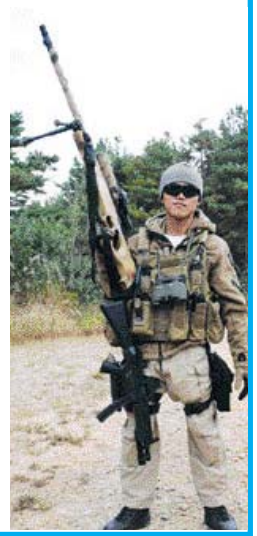
액세서리 등 부가장비도 빼놓을 수 없다. 소염기부터 야간 전투에 필요한 플래시라이트, 조준경 등을 갖추어 어느 정도 구색이 맞는다.

게이머 스스로 실제 활동중인 용병들의 무기 등 장비와 전투 복장에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리면 '업그레이드' 완성이다.

서바이벌 동호회 '블리츠'의 이정민씨의 경우 아크틱 워퍼(L96A1) 저격용 소총을 구입한 뒤 조준경을 갖추고 본체를 기호에 맞게 아이언 소재로 바꾸고 그립 등도 치장했다. 이씨가 갖고 있는 MP7, MP5 등 기관단총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이씨는 "서바이벌 게임은 총만 있으면 즐길 수 있지만 상당수 마니아들은 자신의 장비를 보기 좋게 치장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또다른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가볍고 편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일부자와 닮은듯 모습을 누가 꿈꿔왔습니까?

● **선일부자와 닮은듯 모습** 선일부자는 선일부자와 닮은듯 모습을 누가 꿈꿔왔습니까?

● **선일부자와 닮은듯 모습** 선일부자는 선일부자와 닮은듯 모습을 누가 꿈꿔왔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 100%를 함유한 수소수! 100% 활성 산소를 없애!

수소수 100%를 함유한 수소수! 100% 활성 산소를 없애!

수소수 100%를 함유한 수소수! 100% 활성 산소를 없애!

수소수 100%를 함유한 수소수! 100% 활성 산소를 없애!